

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· EDU-03

가계예산·현금흐름·비상자금

월별 숫자에만 매이지 않고 불규칙 지출과 충격까지 견디는 생활 안전망을 만든다.

큰글자 학습본

본문 10.5pt 이상 · 내용 기준 2026-08-24 ·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

큰글자 핵심학습본

이 자료는 일반 교육자료입니다. 개별 계약·세금·법률 판단은 적용 시점의 공식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왜 배우나요?

예산은 절약표가 아니라 생활을 꾸기지 않게 하는 시간표입니다

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먼저 이해하기

- 가계예산은 돈을 아끼라는 명령이 아니라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의 시점을 맞추는 계획입니다.
- 매달 같은 지출, 달마다 달라지는 지출, 가끔 큰돈이 드는 지출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.
- 비상자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소득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필수지출에 대비해 따로 둔 돈입니다.
- 적자가 예상되면 추가 대출보다 먼저 지출 시기 조정과 공적 지원·상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.

PART 0 · EDU-03

먼저 알아둘 필수개념

뜻을 읽고 생활 예를 떠올린다.

현금흐름

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움직임입니다.

- 생활 예: 25일 월급과 20일 월세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.
- 확인: 월말에 돈이 남으면 중간에 부족할 가능성은 없나요? 있습니다. 지출일이 수입일보다 빠르면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.

고정·변동·비정기 지출

반복 방식에 따라 지출을 나눈 것입니다.

- 생활 예: 월세는 고정, 식비는 변동, 자동차보험은 비정기 지출로 봅니다.
- 확인: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인가요? 아닙니다. 비정기이지만 예상 가능한 지출입니다.

필수생활비

당장 생활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지켜야 할 비용입니다.

- 생활 예: 주거·식사·의료·출근 교통비를 우선 남깁니다.
- 확인: 구독료는 자동이체이므로 항상 필수생활비인가요? 아닙니다. 자동이체 여부와 생활 필수성은 다릅니다.

비상자금

소득중단이나 갑작스러운 필수지출에 쓰는 접근 가능한 돈입니다.

- 생활 예: 실직 기간의 월세와 식비를 위해 별도 계좌에 둡니다.
- 확인: 오늘 필요한 비상자금을 팔기 어려운 자산에 두어도 되나요? 적합하지 않습니다. 필요한 때 쓸 수 있어야 합니다.

생활비 바닥선

위기에도 먼저 남겨 둘 최소 생활비 기준입니다.

- 생활 예: 월세·기본 식비·치료비·출근비를 합쳐 보호 금액을 정합니다.
- 확인: 적자가 나면 모든 지출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나요? 아닙니다. 필수생활비를 먼저 보호하고 선택지출부터 조정합니다.

기초학습 1 · 잔액과 현금흐름

돈이 있는데 왜 월말에 부족할까요?

잔액은 한 시점에 남아 있는 돈이고, 현금흐름은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입니다. 월초 잔액만으로는 월말 부족을 알 수 없습니다.

수입일과 지출일을 달력에 놓으면 총액이 같아도 특정 날짜에 돈이 모자라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.

- 정기 수입의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.
- 필수지출과 자동이체 날짜를 적습니다.
- 날짜별 예상 잔액이 0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을 찾습니다.
- 생활 예: 월급은 25일인데 카드값은 20일에 빠진다면 월 총수입이 충분해도 20일에 결제 실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흔한 오해: 한 달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언제나 안전하다는 생각은 틀립니다. 시점과 변동성도 중요합니다.

확인: 월 수입 250만원, 지출 230만원이면 예산 점검이 필요 없을까요? 아닙니다. 지출 시점과 비정기 지출 때문에 중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.

기초학습 2 · 고정·변동·비정기 지출

지출을 왜 세 종류로 나눌까요?

고정지출은 매달 비슷하게 반복되고, 변동지출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. 비정기 지출은 매달 나오지 않지만 자동차보험·수리비처럼 예상 가능한 큰돈입니다.

종류를 나누면 줄일 수 있는 지출과 미리 적립해야 하는 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- 최근 3개월 내역을 모읍니다.
- 각 지출을 고정·변동·비정기로 표시합니다.
- 비정기 지출은 연간 예상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.
- 생활 예: 연 60만원 보험료는 결제월에 갑자기 생긴 지출이 아니라 매달 5만원씩 준비할 수 있는 비정기 지출입니다.
- 흔한 오해: 고정지출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은 틀립니다. 계약 갱신이나 해지 조건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확인: 명절비는 매달 없으니 예산에서 빼도 될까요? 아닙니다. 예상 가능한 비정기 지출로 월별 준비액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.

기초학습 3 · 필수생활비와 선택지출

무엇부터 지켜야 할까요?

필수생활비는 주거·식사·의료·교통처럼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. 선택지출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 비교적 쉬운 비용입니다.

적자 때 모든 지출을 똑같이 줄이면 건강·주거·근로 유지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.

-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항목을 표시합니다.
- 연체 시 큰 불이익이 있는 지출을 구분합니다.
- 조정 가능한 항목의 금액과 시기를 바꿉니다.
- 생활 예: 교통비는 단순 소비가 아니라 출근을 유지하는 필수비용일 수 있습니다. 반면 구독서비스는 해지 조건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흔한 오해: 즐거움을 위한 지출은 모두 낭비라는 판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목적과 한도를 정해 관리합니다.

확인: 적자가 나면 월세와 통신 구독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생활 유지와 불이익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.

기초학습 4 · 비상자금과 적자 대응

비상자금은 얼마가 정답일까요?

비상자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답이 없습니다. 필수생활비, 소득의 안정성, 부양가족, 의료·주거 위험에 따라 필요한 규모가 달라집니다.

비상자금은 수익을 높이기보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고 원금 변동이 작은 곳에 두는 목적이 큼니다.

- 한 달 필수생활비를 계산합니다.
- 소득이 끊길 수 있는 기간과 큰 지출 위험을 추정합니다.
- 목표액·월 적립액·사용 후 보충 규칙을 정합니다.
- 생활 예: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는 정규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더 긴 기간의 필수생활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흔한 오해: 비상자금을 투자상품에 넣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확인: 비상자금 목표가 크면 준비를 포기해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작은 1차 목표부터 쌓고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립니다.

PART 1 · EDU-03

학습 목표

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.

- 고정·변동·비정기 지출을 구분한다.
- 순현금흐름과 필수생활비를 계산한다.
- 가구 상황에 맞는 비상자금 목표와 적립 순서를 정한다.
- 적자가 생기면 보호할 지출과 줄일 지출을 구분해 대응한다.

PART 2 · EDU-03

핵심 구조

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.

- 예산은 절약 경쟁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기 전 우선순위를 정하는 안전장치다.
- 월급일이 같아도 납부일이 앞서면 현금이 모자랄 수 있다. 금액과 날짜를 함께 적는다.
- 명절·보험료·세금·수리비는 비정기일 뿐 뜻밖의 지출은 아니다. 1년 예상액을 12로 나눠 준비한다.
- 비상자금은 투자수익보다 접근성·원금 변동·인출 시간을 먼저 본다.

PART 3 · EDU-03

비교 질문

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.

- 지난 3개월 실제 거래를 수입·필수·선택·상환으로 나눈다.
- 월평균이 아니라 가장 적게 번 달과 가장 많이 쓴 달도 본다.
- 필수생활비를 계산하고 현재 비상자금이 몇 달을 버티는지 적는다.
- 정상·주의·비상 단계별로 중단할 지출과 연락할 기관을 정한다.
- 30일 뒤 계획과 실제의 차이를 한 줄로 설명한다.

PART 4 · EDU-03

행동 순서

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.

- 정상: 예정지출 적립과 비상자금을 자동화한다.
- 주의: 선택지출을 멈추고 납부일·상환일을 조정 가능한지 문의한다.
- 비상: 주거·식사·의료·교통을 먼저 보호하고 즉시 상담한다.
- 회복: 밀린 비용을 한꺼번에 갚지 말고 재발 방지 규칙을 정한다.

PART 5 · EDU-03

확인할 권리

한 문장씩 읽고 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표시한다.

- 복지रो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권리
-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재무·채무 상담을 받을 권리
- 금융회사에 연체 전 상환곤란을 알리고 가능한 조정을 문의할 권리
- 가구원 각자의 사생활과 동의 범위를 존중받을 권리

PART 6 · EDU-03

다섯 사례의 안전한 다음 행동

상황이 비슷해도 계약과 조건은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한다.

월급은 남는데 통장은 마이너스

연간 지출을 빼고 매달 예산만 맞췄다.

비정기지출 연간액을 월 적립액으로 바꾼다.

프리랜서의 들쭉날쭉한 수입

좋은 달 수입을 기준으로 고정비를 정했다.

보수적인 기준수입과 생활비 바닥선을 정한다.

갑작스러운 치료비

비상자금이 부족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찾는다.

치료 일정·보장·공적지원·분할납부를 확인한 뒤 부족액을 계산한다.

명절과 세금

예상 가능한 큰 지출이 같은 달에 몰렸다.

연간 달력에 적고 매달 준비액을 따로 둔다.

가족 생활비 갈등

누가 무엇을 내는지 말하지 않아 연체가 생겼다.

공동비·개인비·비상연락 규칙을 숫자로 합의한다.

PART 7 · EDU-03

공식 근거로 확인한 사실

확정 사실과 조건 확인 문장을 구분한다.

일반 원칙 · 비상자금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법정 정답은 없다. 필수생활비와 소득 변동을 기준으로 정한다.

확인할 조건: 가구 상황과 부양·의료·주거비를 반영한다.

출처: 한국은행 경제교육 · <https://www.bok.or.kr/portal/main/main.do>

조건 확인 · 복지·긴급지원은 소득·재산·위기사유·거주지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.

확인할 조건: 복지رو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한다.

출처: 복지로 · <https://www.bokjiro.go.kr/>

**일반 원칙 · 상황이 어려워질 징후가 보이면 추가 차입 전에 채권자와
공적 상담기관에 문의한다.**

확인할 조건: 조정 가능 여부와 조건은 채무별로 다르다.

출처: 신용회복위원회 · <https://www.ccrs.or.kr/>

PART 8 · EDU-03

생활 변화와 새 위험

하지 않을 것·확인할 것·지금 할 일을 한 문장씩 읽는다.

구독·후불결제는 다음 달 현금흐름까지 차지합니다

작은 월 결제도 여러 개가 겹치면 비상자금과 필수생활비를 줄입니다.

- 하지 않을 것: 이번 달 결제액만 보고 무료체험과 자동갱신을 빼놓지 않습니다.
- 확인할 것: 자동이체·카드 정기결제·후불결제의 다음 청구일과 해지 조건을 한 표에 모읍니다.
- 지금 할 일: 필수생활비를 먼저 떼고, 사용하지 않는 연결·구독을 해지한 뒤 다음 달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.

출처: 금융감독원 ·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· <https://fine.fss.or.kr/>

PART 9 · EDU-03

오늘 할 일

실행 날짜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정한다.

- ☐ 정상: 예정지출 적립과 비상자금을 자동화한다.
- ☐ 주의: 선택지출을 멈추고 납부일·상환일을 조정 가능한지 문의한다.

- ☐ 비상: 주거·식사·의료·교통을 먼저 보호하고 즉시 상담한다.
- ☐ 회복: 밀린 비용을 한꺼번에 갚지 말고 재발 방지 규칙을 정한다.